



#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발행일 2015년 6월 15일 | 총권 35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강하2로 267 | 전화 02-720-7259 팩스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 도서관 이용자시대!!

사람이 잉태되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 열 달 동안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후 변화해온 과정을 닮았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그 열 달은 수천만 년 전 부터 가져온 우리의 모든 기억을 압축 저장하는 기간이 아닐까? 우리 몸은 시공을 초월한 기억 장치다. 주자(朱子)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인간의 모든 이치와 도리를 모두 갖추고 태어났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그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 책읽기라 했다.

인간은 두발로 서기 시작한 이래 정말 많은 도구들을 만들어 써왔다. 우리 몸의 기능들을 쭉쭉 확장 시킨 도구들. 아르헨티나의 작가이자 도서관인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도구가 바로 '책'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기억'을 끝없이 확장시켜주는 위대한 도구가 책이라는 것이다. 그 인간의 거대한 기억터미를 모은 책, 그 기억터미들을 종이책으로 오롯이 품고 있는 곳이 도서관이다.

책읽기!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지만 그 책으로 다가가는 환경은 사회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 둘레에서 누구나 걸림없이 드나들 수 있는 도서관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마을마다 도서관이 있다 해도 쭉쭉쭉 내가 가도 되나 하며 선뜻 누리지 못한다. 도서관을 주저없이 드나들며 쌓은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이 없어서일 것이다. 어린이도 그렇지만 어른들은 더 도서관 문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도서관문화는 세대를 초월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도서관' 하면 어린이들을 먼저 떠올린다. 이제부터라도 지역 어른들도 도서관 안에서 어려서 누리지 못했던 책도 읽지 않고 꼭 책이 아니어도 사람책이 되어 인간의 삶이 녹아든 문화를 함께 풀어내는 소통공간으로 도서관을 누려야 한다. 온 국민이 오롯이 이용자가 되고 또 운영의 주체가 되어

함께 누려 볼 도서관은 그 공간을 누려본 행복한 기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 첫 걸음으로 범시민 도서관 회원증 갖기 운동을 펼쳐보자. 오늘 당장 가까운 도서관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서 도서관 회원증 만들어 가져보자.

도서관은 쭉쭉쭉 도서관문을 두드리는 시민들에게 주인노릇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반갑게 가슴 열어 풀어주는 일! 그 첫 만남을 어떻게 따뜻하게 할까 고민해보자.

도서관!!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도록...

유아에게는 생애 첫 번째 도서관이 되게...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공간이 되게  
젊은 부모들에게는 책을 통한 공동체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 되게...

어르신에게는 삶의 경험을 나누어 주는 공간이 되도록  
세대를 넘나드는 삶의 공간, 교육의 공간, 문화의 공간이 되어 함께 어울림을 누리도록

도서관을 고향처럼 그리워할 기억이 많아지는 날,  
온 국민이 도서관 일이라면 모두 손들고 나서서 지지해주는 도서관의 아군이 되는 그 날, 더 이상 도서관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날,  
그날을 기다린다.

김경숙 | 학도넷 사무처장

###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학교 도서관 탐방

03\_ 나의 길, 학교도서관

04\_ 추천도서

책모임 옛꿈터가 권하는 책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노안나 / 김연진 / 송단비 / 권경미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시오. 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

# 아이와 엄마가 함께 누리는 행복교실, 서울염경초등학교 도서실

- 장정선(서울 염경초등학교 도서명예교사회 회장)

서울염경초등학교(이하 염경초)는 조선시대 소금의 벚길 어귀로 소금 보관창고가 있던 염창동에 있으며 2005년에 개교했다. 학교 정문 근처에 길게 나 있는 한강 산책로는 엄마와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식물과 곤충을 관찰하기 좋아서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 된다. 학교정문에 들어서면 학년별로 자신의 꿈을 담은 소망 글로 벽을 장식하여 한명 한명 염경 아이들의 꿈을 응원한다. 그런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책임 기임을 강조하며 학부모도 함께 책임기를 권하는 교장 선생님의 교육철학은 학부모 대상 '독서교육지도', '자기주도 학습지도' 과정 등을 전문가 수준의 프로그램을 열어서 학부모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연결되었다.

학부모들의 참여는 학교 도서실에 양분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개교와 함께 문을 연 도서실을 가득 메운 장서를 관리하는 사서 선생님을 도우며 아이들이 오고 싶은 도서실 환경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해마다 학기별로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희망도서를 반영하여 주문되는 신간도서와 권장도서의 풍성함은 아이들이 책 읽는 기쁨을 누리게 해준다. 방과 후에는 학부모들에게도 도서실을 개방하여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어울리면서 아이들의 독서 습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염경초에서는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책 읽자'에 도서실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꾸준히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창의·인성 함양을 위해 독서토론수업을 진행하여 아이들이 협력하면서 생각을 나누는 방법을 익히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장을 마련하기도 한다. 도서실은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다독상' 시상은 도서실 이용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점심시간에는 예쁜 초대장을 들고 도서실 문을 뚫으며 열려 수줍게 들어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이 들고 있는 초대장은 다독상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다독 수상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초대장의 자리가 마련됐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이날은 교장선생님이 다독 수상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축하해주는 행사로 진행된다. 다독 수상자들의 이름과 사진을 도서실 앞에 예쁘게 장식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아이들이 책이 주는 즐거움을 축제로 느낄 수 있도록 "북 페스티벌(book festival)"을 연다. 해마다 한 번씩 일주일동안 열리는 북 페스티벌은 요일별로 책과 관련된 흥미로운 행사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내가 갖고 있는 책을 친구에게 선물하거나 도서실에 기증하여 나눔의 즐거움을 체험하기도 하고 도서명예교사와 독서토론동아리 어머니들이 일일 교사가 되어 학년별로 '책 만들기 교실'을 진행하여 아이들의 독창성과 상상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이들이 만나고 싶은 작가를 투표하여 저자와의 만남을 한다. 저자를 모시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도 하고 작가의 친필 사인도 받아 볼 수 있는 행사로 아이와 학부모 모두를 만족시켜준다.

매주 수요일마다 도서실에서 학부모 독서토론 동아리 회원들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을 진행한다. 유치원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 처음 학교의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해 가는 저학년들에게 책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생각을 확장시켜주는데 도움을 주고자 꾸려진 시간이다. 도서실에 오는 모든 아이들이 마음만 열면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읽어줄 좋은 책을 선정하는 일부러 준비하는 손길에서 학부모들의 정성이 묻어난다. 학교밖 놀schul학원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편안함과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선사하고자 아이템을 고심하며 끊임없이 의논하는 열정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지는 듯 매주 서른 명 가까운 아이들이 참여한다.

도서실에 오는 아이들에게 "어서와." 하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맞이하는 사서선생님의 모습에 아이들은 도서실이 평온함을 느끼며 쉼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책을 고르는 아이들의 모습은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인재들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들은 모든 아이들에게 학부모가 아닌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아이에게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대신 아이들과 함께 더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자녀와 함께 책 읽기를 선택했다. 엄마들은 그 선택이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책을 건네는 엄마의 진심이 통하는 염경초등학교 도서실의 아름다운 풍경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 꿈의 배움터, 나의 학교도서관!

-김혜연(강화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어느덧 나도 10년에 썬표를 찍는다. 학교도서관을 터전 삼아 아이들과 책으로 소통하고, 책으로 쌓아온 추억의 시간들이 소중한 자양분이 되어 '사서교사 김혜연'을 만들어 준 것이다. 내가 학생으로서 '학교'를 떠난 후 사서선생님으로서 만난 '학교'는 어린 시절 처음 만난 '선생님'부터 성장과정에서 인연이 닿았던 나의 인생 멘토들의 조언을 하나씩 풀어내기에 참 적당한 곳이었다. 특히 요즘 아이들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을 떠올렸다.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경상남도 통영의 작은 시골마을, 지금은 폐교가 되어버린 화양초등학교 1학년 1반에서 나는 처음으로 '선생님'이란 존재를 마주하였다. 환한 미소와 친절한 목소리. 사실 그분에 대해 떠오르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밝고 따스했던 기억은 나도 언젠가 그런 자리에서 학생들을 대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해 주었다. 그리고 보니 지나온 학창시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주시는 분보다 마음으로 따스하게 사람을 대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근무하는 학교도서관에서는 학생들에게 밝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분, 마치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키팅선생님 같이 나의 생각을 일깨우고,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신 고2때 국어선생님이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다소 자유분방하지만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신 그분은 지금 내가 아이들과 책을 읽고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즐길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다.

물론 나에게도 방황의 시간은 있었다. 사서교사가 된 후 3년간은 3월이 되면 추위를 뚫지 못한 채 시샘당하는 꽃샘추위처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번번이 내 앞에서 서성이는 학생들을 외면하곤 했다. '학교'라는 곳에서 사서교사는 혼자라는 외로움이란 추위. 내가 좋아하는 책만 읽지 못하고 책을 정리만 하다 끝나고 마는 것 같은 허무함이란 추위 때문이었다. 그러나 언젠가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벽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사서교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나는 당연히 책을 떠올렸다. 도서관의 여러 자료들.

그러나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서교사는 책을 좋아하는 것보다 '책을 읽는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책을 읽는 사람을 좋아하라... 문득 나는 잠에서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도서관이 좋아서, 책이 좋아서 일을 하긴 했지만, 정작 도서관에 들어와서 책을 읽는 사

람을 좋아해서 출근한 기억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책을 손에 든 학생들이 눈에 보이고, 그 책을 읽으며 미소 짓는 아이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책놀이부터 독서토론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 덕분인지 여전히 나의 독서동아리들은 언제 만나도 웃으며 서로에게 책을 권하고, 책 속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을 수 있는 것 같다.

중·고등학교에서 골고루 근무하면서 참 다양한 아이들도 만났다. 14세부터 19세까지, 변화무쌍한 청소년들이지만, 내가 만난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었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처럼 자연의 흐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마음의 여유와 타인에 대한 사랑 품을 줄 아는 아이들은 '책으로 탐험'을 하든지, '정'이란 글자가 들어간 책 찾기 같이 흥미위주의 독서행사에도 어린아이처럼 마냥 행복해했다. <모모>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의 위로를 받게 도와주는 주인공 모모처럼 때론 나의 잔소리나 지적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책을 정리하거나 독서행사재료 만드는 일을 도와주기도 했다. 그러곤 '선생님~!' 하고 웃으며 다시 다가왔다. 그런 아이들에게 오히려 내가 <언어>의 눈 맑은 언어같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기도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불량한 주스기계>의 주인공처럼 때론 일탈을 꿈꾸다가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기억하고, 결국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아이들도 만났다. 책 읽는 걸 좋아하지만 마음을 열지 않던 아이가 <무지개 곳의 찾집>을 읽고, 내면의 상처도 치유하고, 차츰 같은 아픔이 있는 다른 친구를 보듬을 줄 아는 용기를 갖는 모습도 보아왔다.

한번은 <우아한 거짓말>이란 작품을 읽고 아이들과 토론하면서 주인공들이 말한 '괜찮다.', '아프지 않다.', '힘들지 않다.', '외롭지 않다.'가 자기 격려의 말이기도 하지만, 현실 속에선 우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걸 느꼈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아이들을 위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언급했던 이 말을 꼭 해주곤 한다. "머리는 구름 위에 두고, 발은 땅에 두어라." 이는 꿈은 높이 꾸되, 항상 현실을 직시하라는 의미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불투명하고, 과연 미래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에 젖은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더욱 이 말을 강조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되 현실을 고려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막연할 것 같은 미래도 안개 걷히듯 맑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말이다.

이렇듯 학교도서관은 '교실'과는 또 다른 차원의 소통

## 꿈의 배움터, 나의 학교도서관

-김혜연

푸른 들판 초록 풀잎, 자그마한 풀벌레를 만나러  
끼룩끼룩 갈매기와 반가워 인사하는 바다의 눈부신 하얀  
파도를 만나러  
향긋한 꽃내음 속 촉촉한 어린 꽃잎과 인사하러

오늘도 나의 도서관, 꿈의 배움터로 갑니다.

하늘은 푸르고  
정의를 울바르며  
자유는 꿈꾸는 이의 모든 소망인 것을

오늘도 나의 도서관, 꿈의 배움터에서 느낍니다.

내가 닿아보지 못했던 세상과의 손 맞잡음  
내 꿈의 등계구름을 하나하나 띄워주는 따뜻한 손길

오늘도, 나는 나의 도서관, 꿈의 배움터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때론 교실에서의 모습과 정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도 간혹 만난다. 그것이 그 아이들의 부정적인 측면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그러기에 오늘은 또 어떤 책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까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요즘은 아이들과 '독서'란 이름으로 수업시간에 도서관에서 만난다. 독서동아리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과는 사뭇 다르지만, 한 반에 35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매시간 만나면서 뭔가 체계적인 독서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진로독서활동을 위한 <꿈을 찾는 독서운동>과 교과연계 독서활동을 위한 <정보 활용과정을 통한 독서>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독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꿈이나 관심분야에 관한 책을 권해주면 한동안 책을 살펴보는 모습을 발견하고, 진로탐색을 위한 독서활동을 '독서운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 권의 책을 정해서 선택한 동기, 분야, 읽는 과정에서의 메모(기억에 남는 글, 떠오르는 생각, 질문꺼리 등)와 간략 독후감의 형태로 구성된 독서기록장은 우리학교 다독상 상상의 근거자료로도 쓰고 있어서 아이들의 호응이 좋았다.

또 도서관 협력수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정보 활용과정(Big6 Skills)'에 대한 소개도 한다. 독서활동이 바로 이 과정 중 정보 분석과 이해단계에 해당되기에 학생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행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고,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탐색하고 요약, 정리, 평가하는가에 대해 단계별로 연습하다 보면 학교도서관은 진정한 배움의 장이 되고, 아이들의 기억 속에 다방면으로 유익했던 학교도서관이라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 창고같은 작은 도서관에서도 내 꿈을 펼치고, 앞의 기쁨을 맛보았던 그때처럼 우리 아이들과도 그런 기쁨을 공유하고자 오늘도 부지런히 책을 읽고, 생각하고 또 아이들을 만난다.

# 책모임 옛꿈터(옛이야기로 꿈꾸는 놀이터)가 권하는 책

옛이야기로 꿈을 이야기하는 경기 광명지역 엄마들의 모임입니다. 옛이야기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괜찮다고 위로도 하며 우리도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응원도 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옛이야기는 아이들에게도 엄마들에게도 꿈을 꾸게 합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어 이렇게 좋은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까막나라에서 온 샹사리

정승각 글·그림 / 초방책방

우리 고유의 구전 되어오던 불개이야기를 작가가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와 옛이야기에서 소재와 기법을 끌어와 독창적으로 재창조한 이야기다. 털이 복슬복슬 많이 나 있으며,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육해 온 사육견. 천연기념물 제368호. 이것이 샹사리의 사전적 의미이다. 서양 문화에 익숙하다 못해 선망하기까지 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이 책을 권하면서 갖는 우리 어른들의 걱정과는 달리 쉽게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의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말을 새삼 실감한다. 이제는 우리 것을 돈과 시간을 써가며 배워야 하는 시대,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봐야만 하는 그런 그림책이 아닌가 싶다.



## 콩숙이와 팔숙이

이영경 글·그림 / 비룡소

동서고금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회자되는 콩쥐 팥쥐 이야기. 현재도 뉴스에서 잇을 만하면 튀어나오는 현실성이 강한,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이다. 콩숙이와 팔숙이는 옛날부터 전해 오는 콩쥐팥쥐이야기를 씨실 삼고, 우리 현대사의 한 시절을 날실삼아 쓴 책으로 옛이야기의 기본 틀을 잘 살렸다는 평을 듣는다. 같은 작가의 책인 마요족 마을을 여행하고 쓴 마요족의 콩쥐팥쥐이야기 <오러와 오도>를 서로 비교해 보며 읽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김성민 글·그림 / 사계절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대표적인 옛이야기로 누구나 한번쯤은 인형극이나 책으로 접해보았을 것이다. 그 중에서 사계절 출판사에서 펴낸 김성민 작가의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다른 책들과 달리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호랑이가 아기 손가락을 먹는 소리를 어머니가 콩 볶는 소리로 착각했다가 진실을 알아차리고는 오누이가 똥이 마렵다고 핑계를 대며 도망가는 화소가 잘 살아있다. 또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인 목판화 기법으로 이루어진 까만 밤, 눈 덮인 겨울의 생동감 있는 표현과 오싹함을 더해주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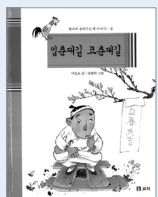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본다면 더욱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백두산이야기

류재수 글·그림 / 보림

아주 먼 옛날, 한반도가 만들어지고 우리 조상들이 삶의 터전으로 잡게 된 신화를 백두산이 생긴 유래에 맞추어 새롭게 만든 장쾌한 이야기다. 한민족의 꿈과 사랑, 자긍심이 힘 있는 붓질로 아름답게 묘사되어 소장하고픈 보물 같은 책이다. 우리 집 여덟살 아이와 읽으면서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해와 달이 두개씩 있으니까 새벽이나 저녁을 만들어 준 것 같다는 기발한 이야기를 들었던 소중한 책이다.



## 입춘대길 코춘대길

서정오 글 / 김병하 그림 / 보림

봄에 들려주는 햇살처럼 따스한 이야기와 바람처럼 가벼운 이야기 <입춘대길 코춘대길>.

철따라 들려주는 옛이야기 중 봄철에 어울리는 서른 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다. 마을에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봄에 피는 꽃과 나풀나풀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며 옛이야기 한 자락 들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같이 이야기가 사라지고 아이들 동요가 사라지는 때에 우리 옛이야기를 읽고 기억해서 아이들에게 풀어내고 싶다.



## 훨훨 간다

권정생 글 / 김용철 그림 / 국민서관

<강아지똥>으로 유명한 권정생의 살아있는 입말과 해학적인 그림이 어우러져 한바탕 놀이를 옮겨 놓은 듯하다. 산골 외딴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는 삶의 기쁨이다. 그런데 할머니가 정성들여 짠 베 한 필과 맞바꾼 이야기는 알지 못하는 사이 위기를 모면하는 방책이 되어 주기도 한다. 아이와 한바탕 몸 놀이를 즐기며 이야기 속에서 훨훨 날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구렁덩덩 새신랑

박경호 글·그림 / 비룡소

구렁덩덩 새신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옛이야기이다. 구렁이로 태어난 구렁덩덩 새신랑은 부잣집 셋째 딸과 결혼한 첫날밤에 허물을 벗고 멋진 선비로 변신하게 된다. 그러나 신부의 잘못으로 구렁이의 허물이 불에 타게 되고 신랑은 멀리 사라지게 된다. 사라진 신랑을 찾아 신부는 온갖 고생

을 하게 되지만 결국 신랑을 찾게 되고 가슴깊이 남아 있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이 작품은 보이는 겉모습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하찮은 존재라도 쉽게 보아 넘기지 않는 착한 마음씨를 보여준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얻기 위한 지극한 노력과 지혜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 복 타러 간 총각

정해왕 글·그림 / 보림

가난하고 복도 없어 무엇 하나 되는 일이 없는 한 총각이 하늘나라 하늘님께 복을 타러가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이다. 무한경쟁과 물질만능주의의 팽배한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삶을 반추해보게 되고 좌절감과 신세한탄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스스로의 삶에 욕심을 비우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보석 같은 능력을 찾고 나쁜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고 나눔으로서 스스로 복을 얻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옛이야기의 참맛을 구수한 입말로 맛깔나게 담아내어 책의 재미를 더해준다.



## 깜박깜박 도깨비

권문희 글·그림 / 사계절

아직도 호랑이가죽 팬티를 입고 머리에 빨이 난 일본의 '오니'를 도깨비로 알고 있나요? <깜박깜박 도깨비> 속에서 동글동글 친근한 외모의 허당 매력을 가진 우리 도깨비와 만나보세요.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한 아이 앞에 나타난 도깨비. 돈을 빌려 달라는 도깨비의 제안에 아이는 망설이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도깨비와 마주하게 되고, 그 후 둘의 오랜 우정이 시작된다. 흥겨운 입말과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 아이의 성장을 함께 즐기게 된다.



## 아이들은 이야기밥을 먹는다.

이재복 지음 / 문학동네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는다면 좋겠다. 그런데 왜 좋을까? 많은 부모와 교사들이 아이들이 책과 친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아이에게 왜 책과 이야기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어린이문학 평론가 이재복은 "아이들에게는 몸에 좋은 영양을 주는 밥을 잘 해서 먹어야 한다. 이 못지않게 정신에 영양을 주는 '이야기밥'도 잘 해서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깊게 읽는다는 것, 들려준다는 것, 듣는다는 것의 중요성을 마주 앉아 이야기하듯 풀어내고 있다.

# 내가 권하는 책



**꽃 같은 시절**

공선옥 지음 / 창비  
264쪽 / 2011년 4월


지렁이 울음소리 들어보셨나요? 『꽃 같은 시절』을 읽고 나면 지렁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땅과 고향을 지키기 위해 석재공장에 맞섰던 영희와 마을사람들의 이야기가 지렁이들의 울음소리 혹은 애절한 교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이지만, 소설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지렁이는 울고 있습니다.

시위, 싸움, 투쟁이라는 말이 아니어도 시골 할머니들의 구수한 입담으로, ‘대통령대통령 뽀시락뽀시락뽀시락 곤지곤지곤지’ 하는 따뜻하고 보드라운 말로 압담한 현실에 맞서는 작가에게서 저는 평화를 보았어요. 지렁이와 나비, 거미, 참새와 벌, 당산나무와 돌담, 복사꽃, 비름꽃과 달개비꽃, 화전놀이와 모과꽃술... 이 작고 연약한 것들이 빠짐없이-잔잔하게 그려진 농촌 시골마을의 풍경만 해도 개발이라는 이름의 폭력에 맞서게 하는 이유가 되고, 결국엔 지렁이 울음소리가 분쇄기소리보다 크지는 않더라도 분명 존재하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얼마나 잘 그려냈는지요.

큰 소리보다 들릴 듯 말 듯 한 소리가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3년 전 이 책이 나왔을 때보다 지금의 감동이 더 한 것은, 그만큼 세상이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겠지요. 도처에 얼마나 많은 ‘석재공장’이 있나 몰라요. 밀양, 청도 송전탑문제가 그렇고 전국의 핵발전소 주변이 그렇고, 제주 강정마을이 그렇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다보니 이런 ‘석재공장’의 존재는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떠안게 된 예산 고흥리마을, 레미콘공장이 들어서 주민들이 물 걱정, 먼지 걱정, 건강 걱정이 태산인 삼포 상하리마을, 한적한 시골마을마다 들어서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는 대규모 축사시설, 석면광산을 통과하는 기차노선으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홍성 광천... 이 모든 현장의 공통점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의 건강과 삶을 기반, 마을공동체를 위협하며, 조상 대대로 지켜온 땅과 고향의 풍경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소설 속 이야기처럼요.

다행스럽게도 이 모든 현장에는 “순하고 약한 사람들의 순하고 약한” 지렁이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땅과 고향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보면 꼭 순양면의 할매들이 살아서 책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고맙고 미안한 일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울수록, 저마다 지렁이 울음소리를 내고 귀 기울여 서로의 작은 울음소리를 듣고 손짓하며 부지런히 교신해야겠습니다.

-신은미 (예산홍성환경연합 활동가)



**한밤의 선물**

홍순미 글·그림 / 봄봄  
40쪽 / 2015년 1월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지만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연 속 ‘시간’의 고운 걸을 우리 종이, 우리 색으로 아름답게 빚어낸 그림책, <한밤의 선물>. 작가가 ‘5년 동안 함께하며 밤하늘로 물들인 한밤이’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한밤’을, 또 ‘검정’을 만나게 한다.

나는 표지부터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검정 바탕 속 흰 토끼의 보드라운 털들이 한 올 한 올 살아있는 것만 같았다. 우리 종이로 빚어낸 신비로운 그림에, 엮어낸 이야기도 특별하다. 빛과 어둠이 낳은 다섯 아이들-새벽, 아침, 한낮, 저녁, 한밤에게 시간이 선물을 준다. 새벽에게는 푸르른 고요함을, 아침에게는 상쾌한 바람을, 한낮에게는 눈부신 해를, 그리고 저녁에게는 노을-곱게 물든 꿈을. 그런데 한밤이 일어나자 아무 것도 없고 깜깜하기만 하다. 한밤은 속상해 눈물을 툭툭 흘린다. 그런 한밤을 찾아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새벽, 아침, 한낮, 저녁. 한밤은 고마운 마음에 자신도 자신의 일부분(그림자)을 나누어준다. 모두가 떠난 뒤 홀로 남은 한밤은 하늘을 수놓은 별빛 아래 혼자가 아픔을 느끼며 잠이 든다. 방울방울 눈물방울이 가득했던 앞 면지는 뒤 면지에 이르러 환한 별들이 가득하다.

우리 종이 우리 색으로 새벽, 아침, 한낮, 저녁, 한밤을 풍성하게 빚어낸 장면 장면이 반갑고 기쁘다. 또,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주는지! 나는 ‘한밤’에게서 세월호를 탔다가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을 보았다. 가슴 시렸다. ‘한밤’이 선물한 ‘그림자’, 지금 여기 어두운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림자’는 무엇일지 헤아려보게 되었다.

날마다 새벽, 아침, 한낮, 저녁, 한밤 마주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무심히 지나쳐버리기 일쑤인 시간과 자연의 선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림책, <한밤의 선물>. 널리 나누어 읽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한밤’처럼 외롭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마음 보태며 더불어 살아가면 좋겠다.

-이숙현(경북 구미 금오유치원 교사)



**까만 밤**

정유경 글 / 정호선 그림  
창비 / 99쪽 / 2013년 6월

최근 수많은 동시집에 파묻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중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정유경의 두 번째 동시집 『까만 밤』에서 받은 느낌을 열거해 본다. 총 50편의 동시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맛과 향기가 있다-포도를 말할 때도/포도 껍질을 포, 하고 빨을 때도 동글동글. 「포도송이」에서는 포도 맛이, 「목련나무 하얀 새」의 바닥에 뒹구는 목련 잎에서는 꽃향이 난다. 「더덕」에서도 알싸한 더덕 향이 맡아진다.

그리고 그림과 소리가 있다-「나비의 첫 날기」에서 빌빌빌, 왼쪽으로 갔다/볼볼볼볼, 오른쪽으로 갔다 부분은 벌의 맨 처음 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는듯하다. 「갈치」 또한 참 재미있는 동시다. 갈치를 굽자, 치\_/갈치를 굽자, 치\_ 반짝반짝 은갈치를 막 구워 뜨거운 밥에 올려 먹고 싶게 한다. 치\_소리는 상상만 해도 단백하고 고소한 갈치 맛이 느껴지게 하는 소리다.

또 하나 이야기와 재미가 있다-그래서 하느님은/하늘과 땅을 맞대어 놓고는/한 땀 한 땀/정성 들여 바느질을 하기 시작하셨어. 그때 하느님이 쓰신 실이 뭐냐고?/바로 나무야 「옛날에 하느님이」와 놀기는 더하기/숙제는 빼기/용돈은 곱하기/이야기는 나누기 「이야기는 나누기」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재미있게 다가온다.

더불어 색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아무일 안 했다고/시치미 떼는데 산수유 빨간 열매가/붉기도 붉어라. 「산수유 열매」에서는 산수유 빨간 열매가 화자 대신 부끄러움을 받아주는 것 같다. 사랑을 말한 여성적 감성의 동시로는 「달콤하니」, 「시곱바늘이 왈츠처럼」, 「그랑」, 「걸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사물을 관찰한 동시로 「지는 해」, 「까만 밤」 등, 시이면서 동시이고 동시이면서 시가 된 것들이 많이 등장한다.

동시집 『까만 밤』을 통해 한 번 읽으면 안 잊히는 그림과 소리와 이야기와 재미와 다양한 마음을 느껴보길 권한다.

-김수현(작은도서관 활동가)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부모

봄날

노안나(인천 서림초등학교 학부모)

**딸**아이가 처음 서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가던 날, 신관 유치원 입구 위에 커다랗게 쓰여 있는 문구를 보고 “고구마 키우는 어린이.”라고 읽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직 6살이 되지 않은 아이가 주마간산으로 읽은 한글이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문구에 써 있는 말은, “고운 마음과 큰 꿈을 키우는 어린이”였습니다.

병설 유치원을 다녀 초등학교 입학은 하나도 낯설지 않고 편안하게 적응되었습니다. 오히려 1학년 주제에 선배라고 유치원 아이들을 보면 옛날을 얘기하곤 합니다. 예고, 조금은 가소롭다ㅋㅋ

이제 제법 혼자 앉아 공부도 하고 언니 티가 납니다. 아마 다른 서림 친구들 모두 이만큼 컸겠지요!

서림 친구들은 모두 꿈통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살짝 의무적으로 통장을 채워야 해서 힘든 친구도 물론 있었지요. 저도 처음엔 이렇게 기계적으로 칸을 채우면 어떡하나 싶어 걱정을 했더랍니다.

그 통장엔 매일매일 책을 읽고 읽은 책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하는 통장입니다. 작년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꿈통장을 모두 실시하자고 제안하셔서 시작된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들만 하나 했더니, 우리 어머니 동아리에게도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보다 더 피를 내고 싶은 엄마들은 고개를 숙이고 “오, 마이 갓! 우리도 해야 해?” 했으나 다행히 강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도전을 해보세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하시며 일장 연설을 하실 때 한편으론 정말 저는 불량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끔 들러 동아리가 잘 되는지 물어보셨고, 재미나게도 엄마들 회의실 겸 모임방으로 사용하는 교실이 교장실 옆이라 회의가 수다가 될 때는 헉! 이거 다 들으시면 안 되는데... 자중~하기도 하고 바로 옆방인지라 복도에서 자주 교장선생님을 마주쳐서 처음엔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선생님!” 하고 궁금한 거 여쭙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그랬습니다.

워낙 제 학창시절 기억 속에 선생님들은 그렇게 가까운 분들이 아니어서 제가 “선생님!” 하고 부를 수 있

는 분은 사실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런데 이윤석 교장 선생님은 제맘대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격이 없이 친하나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치면 인사드릴 수 있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단지 편안한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교통 봉사 시간이 되면 구역마다 꼭꼭 나오셔서 엄마들과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매일 아침 학교 주변 횡단보도를 돌고 들어가셨습니다.

선생님은 평소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무척 고민하셨나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독서 동아리 회원들은 디베이트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관심있는 다른 학부모님들도 함께요. 디베이트는 형식을 갖춘 교육용 토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반가웠습니다. 독서교육의 일환으로 어머니 독서동아리를 만들게 되었고 디베이트에 관한 관심으로 서림초등학교 모든 분들이 이게 무엇인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련된 학부모들이죠!

저는 선생님의 이런 열정만 보더라도 얼마나 독서교육을 위해 애쓰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으로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능력이 많아서 잘 도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한 점이 많아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저야 개인적으로 학교도서관에 관심이 있고 독서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 이 분야에 관심 갖는 것만으로도 반갑고 기쁜 일이지요. 해서 아이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나서서 한발 한발 함께 걷는 것이 참으로 신나는 일이었지요. 그러면서 내심 교장선생님의 이제까지의 관심과 더불어 우리 학교 어린이들의 꿈통장 뿐만 아니라 어머니 독서 동아리도 아주 잘 자라나 주기를 바랬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 지금 심정은... 끈 떨어진 연 같습니다. 무척 우울 하고 자꾸 눈물이 납니다.

생각이 부족한 제가 보기에선 선생님께서는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저는 교육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교육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뭔가 더 보여주시길 많으셨을 텐데... 그만 갑작스레 멀리 떠나고 마셨습니다.

지난 주 드릴 말씀이 있어 고민 고민하다가 교장실 옆 복도를 기웃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주쳐지지를 않습니다. 교장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병원에 계시다는군요. 그래서 툭툭 털고 일어난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아침, 날아온 소식은 참으로 허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어나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교통안전봉사 할 때 수업은 잘 되느냐고 물어봐주셨던 분이, 너무나 갑자기 먼 길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이상

하지요. 절친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관심 가져 주셨을 뿐인데 그런데 이렇게 서운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독서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몸으로 실천하신 이 분야 말로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봄날, 교정의 벚꽃과 함께 아이들은 성장하고, 한 교육자의 노력이 그 안에 예쁘게 담겨져 있습니다. 고운 마음과 큰 꿈 가진 아이들의 꿈통장은 선생님 바람처럼 무럭무럭 자랄 것입니다. 부디 평안히 안식을 얻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윤석 선생님.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사서

영화 ‘보기가 아닌 이제는 ‘읽기’

김연진(부산 보수동책방골목 어린이도서관 사무국원)

**책** 읽는다.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뜨겁다. 새로운 분기가 시작 될 때마다 프로그램 내용은 책에서 출발하고 매번 이 테두리 안에서만 맴도는 게 익숙했었다. 그렇게 당연히 여기는 차나, 주말 도서관을 찾는 많은 발길들 중 즐겁게 영화를 보는 모습이 색다르게 다가왔다. ‘아이와 어른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면,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문턱을 낮추고 도서관을 찾는 기쁨을 찾아줄 수 있다면?’

‘~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을 모두 가능케 하는 해답은 ‘영화’였다.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라는 매력적인 매체를 도서관으로 좀 더 밀접하게 가져올 기회는 애석하게도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었다. 때 마침 관심을 두고 들락거리던 윤희운 선생님의 카페에서, 그리고 학도넷에서의 사서교육 ‘영화 인문학’ 2박 3일간의 워크숍 소식은 기꺼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줬다. 책이 줄 수 있는 매력에 빠진 직업군들이 모인 사서교육에서 또 하나의 공감대, 영화가 주는 즐거움도 아는 이들이 모였다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같은 느낌으로 친숙하게 다가왔다. 현재는 도서관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영화 읽기를 진행 중에 있다. 물론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에게 3시간 동안 함께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영화를 꺼내줄 수 있는 기쁨이 있다. 또 함께 해주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끼리만의 무엇이 생긴 것 같다. 소소하지만 자기들만의 이야기들이 채워나갈 수 있는 이 시간

이 가져다주는 효과다. '그 영화 참 좋았지', 아이들의 추억 한 편에 우리들이 자리하고 있기를 바라보며 영화인문학의 세계 워크숍, '참 좋았지'라는 나의 추억의 한 편엔 국립청소년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윤희운 선생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다. 더불어 좋은 자리를 만들어준 학도넷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또 다른 반가운 연수에 벼신밭로 올라가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생  
**나도 중학생이 되었다**  
송단비(서울 성서중학교 1학년)

**처**음 중학교 도서관에 갔었다. 언니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많이 다를 거라고 해서 기대를 가득 안고 화요일 국어시간에 도서관에 갔다. 근데 나의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다른 것이라곤 높아진 책장 밖에 없었다. 그날 처음으로 읽은 책은 "열네살의 인턴십"이라는 것이었다. 내용은 선생님이 가고 싶은 회사 같은 데에 들어가서 직업 체험을 해보는 이야기이다. 주인공 남자아이는 마이테 미용실에서 인턴십을 했다. 그 일로 우연히 장래희망을 가진다. 중학교에 오니 수업이 너무 많고 늦게 끝나서 도서관에 스스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단비는 성산동 동네책방 개똥이네 놀이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활동을 하는 중학생 고복이 아직 어색한 귀여운 여학생이다. 성산동에서 아기 때부터 살아온 터라 마을 어른들과도 익숙하다. 동네책방에 오면 책방에서 늘 지내는 어린동생들도 돌봐주고 책도 읽어주고 놀이도 함께한다. 손끝도 야무져서 책분류와 책정리 작업도 잘 돕는다. 마을아이들이 마을어

른들과 어우러져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 아름답다. -편집자 주)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출판계  
**벚꽃과 바람**  
권경미(책숲)

**내**가 졸업한 M시의 고등학교는 합포만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있었다. 봄이면 학교 운동장 둘레며 화단에 지천으로 피어난 봄꽃들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강렬한 색의 조화를 이뤄내며 장관이었다. 특히 삼사월이면 벚꽃이 눈처럼 흩날려 운동장을 하얗게 뒤덮었는데 하느작하느작 내리는 하얀 꽃눈 사이로 언뜻 언뜻 비치는 포탈로블루의 하늘과 포탈로그린의 바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마음에 깊이 아로새겨졌다.

우리 반은 하필 그 꽃눈을 비로 쓸어야하는 청소 당번이었다. 청소는 좀 고약했다. 아무리 말끔히 비질을 해도 돌아서면 어느새 흩날린 바람을 따라 꽃눈은 또다시 하느작거리며 땅으로 내려앉고는 했다.

그래도 우리는 마냥 행복했다. 꽃눈이 떨어지건 말건, 청소를 게을리 한(?) 대가로 점심시간을 반납한 청소를 재차 요구받았건 말았건, 그 풍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로이자, 휴식이었을 것이다.

소녀들의 조잘거림은 지금도 귓가에 맴뎈 돈다. 아무리 아름다운 시절에 살았다 한들 우리가 어찌 자연만을 감상하며 있었겠는가? 위로와 휴식이 되었던 것은 어쩌면 청소를 빙자한 폭풍수다가 아니었을까?

당시 진로 고민 역시 만만한 수다거리였다. 그런데 늘 진전하지 못하고 수다로 시작해 수다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대학의 학과에 대한 변변한 정보도 없었던 때였다. 누군가 자세히 알려주는 이도 없었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대학에 대한 정보가 전무후무했다. 여학생들은 대부분 문과로 진학해, 국어 좋아하면 국문과, 영어 좋아하면 영문과를 택했다. 문예창작학과가 있다는 것도 대학입시 원서를 쓸 즈음에 알았다. 문과가 이렇진대 여학생들에게 이과에 대한 정보는 오죽했을까?

요즘은 어떨까? 정보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정작 진로를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우리가 보냈던 학창시절처럼 그다지 풍성해보이지는 않는다. 장차 하고 싶은 일을 꿈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려야 한다. 그 울렁거림은 먼저 그곳에 발을 디딘 어떤 사람들의 삶에 감동하거나, '업적 혹은 일'에 매료되어야 한다.

책숲에서 출간된 문명을 이끈 발견자들 시리즈는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고려하면서 기획된 책이다. 분야별로 50인의 인물을 선정해 그들이 어떤 생각씨앗을 품고, 싹을 틔우며 그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짧게 서술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자신만의 멘토를 만나게 되면 그 인물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다른 책을 진지하게 읽어보기를 권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꿈을 키워가길 바란다.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봄날에 아름다운 성장이 있기를 청소년기를 지나온 선배로서 간절히 바란다.



**도서관과 학교, 문화 공간을 통해 삶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북유럽을 가다!**



**핀란드 키르코아르네 종합학교**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교육이 방향을 잃을 리가 없습니다."

**덴마크 블락 다이아몬드 도서관**

"덴마크에서는 한국에서처럼 책을 교육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요. 책은 장난감이자 휴식을 취하기 위한 수단이지 대학 입시나 사고를 키우기 위한 목적이 될 수 없지요."

**스웨덴 콜트후셋**

"책이나 일간지를 읽고 어떤 의견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민주 시민이다. 콜트후셋은 책을 읽고 토론하여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시민이 사회의 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즐기는 공간이다."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 서울모임 자료 4204쪽 | 22,000원

**도서관 담당 선생님들의 이유 있는 도서관 탐방 북유럽 도서관과 학교, 사람들의 독서 문화는 어떠할까?**

도서관 담당 선생님들이 찾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도서관과 학교, 사람들의 독서 문화는 어떠했을까?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별다른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북유럽 국가들의 바탕에 깔린 힘은 도서관에서 빛난다. 더불어 평생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와 생활 속에 완전히 녹아든 독서 문화까지 다양한 특색을 지닌 북유럽 4개국을 살펴보면 독자들은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고 배움과 성찰이 가능한 새로운 모델들을 확인할 수 있다.

## 학도넷 소식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 학도넷 행사

- 2014년 12월 15일 소식지 겨울호 발행(총권 34호)
- 2014년 12월 18일 2014 학도넷 후원의 밤
- 2015년 1월 12~14일 중일연수 겨울사서연수  
"빛으로 빛어낸 사람의 무늬, 영화 인문학의 세계"
- 학도넷 사무실 이전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158-2 많이 놀러오세요.

### 신입회원 (2014년 12월~2015년 5월)

정회원 : 임경순 김현숙 박수영 서유진 김우영 남궁정 원인영  
이주혁 한은주 한울림어린이

준회원 : 김연옥 박미경

웹회원 : 안진희 서혜민 임정옥 한울림출판사 김지나 김길한 김현실 김근혜 방선희 이동엽 김지선 변은지 밝은미래 흥은미 이송희 하정민 손재은 진수진 서유미 이소영 고래벚속 손혜련 김미희 김효근 송주호 김은경

### 회비 및 후원내역 (2014년 12월~2015년 5월)

#### 정회원 회비

- 매월 5천원 : 강복숙 강영미 구미숙 권도경 길미숙 김대경 김선영 김심환 김영신 김은영 김정운 김하나 김효숙 박미영 박준섭 백경숙 백연주 변영이 선보배 성주영 송경영 송숙영 송혜영 신은미 신정화 신형란 유서연 유정원 윤남미 이 현 이수연 이유정 이찬미 이현애 임민욱 정수연 정영화 정영희 정해선 주상태 차진미 채재현 최선옥 허지연 허지은
- 매월 1만원 : 강지영 권향미 김경숙 김광재 김숙경 김순흥 김승주 김신희 김옥위 김종성 김진희 류주형 문예원글로피아 박샘 박영옥 박정혜 박지연 백화현 오희애 이경자 이규향 이문숙 정수현 정영희 정지영 정진수 조길량 조선희 조은영 조의래 허경림 황봉희
- 매월 3만원 : 윤성옥(해피북 책모임)
- 연회비 : 김경숙(보령) 6만원

#### 준회원 회비

- 매월 : 김민형(2천) 김송요(2천) 김승현(2천) 손은상(2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송권형(1천) 이제희(2천) 장버리(3천) 장한솔(2천) 최유미(3천)
- 정기후원 : 문학동네(매월 20만)
- 광고후원 : 창비(50만)

겨울사서연수 도서후원 : 멋져 부러, 세발자전거! 20권/ 썬우프, 엄마의 이름 25권(낮은산) / 갈등을 넘어 협력 사회로 60권(살림터) / 도서관 할아버지 원화 45개(고래가숨쉬는도서관)

**늘 학도넷에 마음 써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많은 회원들이 모여 후원의 밤 행사 풍성하게 잘 치루어졌어요. 감사드립니다.**

### 후원의 밤 후원금으로 도움주신 분

- 50만 (주)창비,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학도협)
- 20만 김종성, 신형란, 정진수(학도넷 공동대표), 김혜원(학교도서관문화살림), 안재희(운사모), 도서출판 보리, (계간)고래가숨쉬는도서관,
- 15만 어린이문화연대
- 14만 학교도서관저널 어린이문학팀
- 10만 김경숙, 김봉화, 류주형, 박영옥, 백화현,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문희정(운사모), 변영이, 호경환(혜움나래), 박물관이야기, 서울사서교사협의회, 이덕주 도서관협력사업, 조월레, 조의래, (주)세계출판사, (주)우리교육, 학교도서관저널, 양철북, 서해문집, 문학동네, 청소년출판협의회,

- 5만 신동욱, 이성희, 송인현, 김동윤(길꽃도서관장), 정승호(책 읽는곰), 꿈교출판사, 평화를 품은 집,
- 4만 임경희, 임오남, 김은영(학교도서관문화살림), 최진(천개의 바람), 김효숙, 이정옥, 무명씨
- 3만 한명숙(인제중)
- 2만 김수현, 김은영(남한산초), 한지연, 황진희, 원돈스님, 김인옥(대광고), 박정선(학도협), 도현순, 박종희, 서가진, 오덕성(서울영상고), 안응덕, 예주영, 이민식(길꽃도서관), 이혜진, 정미진, 정석교, 박미영, 홍미숙, 이민수, 강희순, 이현숙, 김정숙, 박정혜, 박샘, 이혜연, 오미경(학교도서관담당교사 서울모임), 백형철(같이보는책), 김경민(책속물고기), 나순희, 송정옥, 마민희, 김영미(어린이책시민연대), 육용희(어린이책시민연대), 곽선아, 이희중, 윤병일(낮은산), 유문숙(보리), 송추향(보리), 최창익, 정영화(개똥이네책방), 김리경(개똥이네책방), 김민정(개똥이네책방), 박성공(길꽃도서관), 장부자, 정해선, 안희정, 백경숙, 장양지, 김옥위, 한숙은, 황지혜, 강정미, 윤혜린, 문재원, 무명씨
- 1만 김기숙(의정부 효자초), 윤희윤
- 도서후원 "위대한 독사자 도서관을 지키다", "아르주만드 뷰티 살롱"(비룡소), "강아지와 염소새끼", 더책 체험판(창비)

###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배 하나 그려주세요(공교)/ 문화재 이름도 모르면서(나는책)/ 사람은 왜 알고 싶어할까, 사람은 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쓸까, 멋져 부러 세발자전거! 썬우프 엄마의 이름, 내게 금지된 책들, 할머니의 열한 번째 생일파티(낮은산)/ 놀며 배우는 행복한 텃밭 놀이터(노란우산)/ 이오덕 말꽃 모음(단비)/ 수진이와 큰개불알꽃(도토리숲)/ 처음하는 어린이 손바느질, 할아버지에게 훈장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토비가 나타났다, 맨 처음 사람이 생겨난 이야기, 처음 만나는 직업책 1, 도구와 기계 250백과, 배운다는 건 뭘까? 생각한다는 건 뭘까? 자고 있는 수학 두뇌를 깨워라 수학천재, 할아버지에게 훈장을, 혼자 되었을 때 보이는 것(미세기)/ 갈등을 넘어 협력 사회로,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학적 성찰, 북유럽 교육기행(살림터)/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 폭력 대처법(시대의 창)/ 오랑우탄 손과 행복 도서관 살인사건(씨네스)/ 상냥하게 살기(양철북)/ 프로젝트로 꽃 피는 자율교육, 책벌레 선생님의 행복한 글쓰기, 와글와글 토론교실(우리교육)/ 사춘기 엄마의 그림책 수다, 곤충 기차를 타요, 수난 시대, 맹공이야 이제 넌 어디서 살아?(웃는돌고래)/ 사회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읽을까(티티)/ 20세기 최고의 탐험가 어니스트 새클턴, 마법의 구구단으로 학교를 구하라(찰리북)/ 도서관에서 만나요(천개의 바람)/ 민중 언론학의 논리, 한국 현대사의 민낯(철수와 영희)/ 안녕 햄스터, 금관의 수수께끼(청개구리)/ 한신 : 차마, 신의를 저버릴 수 없으니, 장량 : 환골탈태, 중원을 통일하다(평사리)/ 이웃에 온 아이, 체르노빌의 아이들, 엘리노어 마르크스, 창가의 토토, 따르릉 여보세요, 목욕탕에서 침범침범(프로메테우스)/ 만화가 담아내는 세상(학교도서관저널)/ 쿠쉬나메, UFO 옆 동네(한솔수북)/ 목발 짙은 하이진(한울림스페셜)

### 소식지 보내주신 곳

가교(한국NGO학회)/ 산책(서해문집)/ 맨발동무(어린이도서관 맨발동무)/ 도서관이야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똥이네 놀이터(보리)/ 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 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 놀이하는사람들(사)놀이하는사람들/ 고래가숨쉬는도서관 봄호(고래가숨쉬는도서관)/ 2015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지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 학도넷이 열한 번째 겨울을 맞이해서

#### 2014 학도넷 후원의 밤을 했습니다.

"낭송, 내 안의 울림"

2014년 한해도 건강한 책문화를 위해 가정에서 학교현장에서 출판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미래문화를 가꿔 오신 모든 분들을 모시고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 2014년 12월 18일 목요일 오후 6~10

·어디서 : 정원이 있는 국민책방

#### ▶ 정이 흐르는 책순환!

그림책 한권씩 품고 오시어요, 내 집에서 묵히고 있는 그림책 요긴한 곳에서 되살려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만들어지는 마을도서관/ 공부방 '흥부네 책놀이터' 책꽃이를 채워주세요.

#### ▶ 세부 프로그램

- 6~7시 여는마당, 이우리 작가와 북극곰 까만 코다의 만남, 싱그러운 낭송의 세계
- 7~8시 윤구병 선생님의 즉문즉설! 우리 어떻게 살아요? 세상이야기 바로 묻고 속 시원한 답을 찾아보아요!
- 8~9시 <낭송의 달인 호모 큐라스> 고미숙 선생님과 만남 낭송은 자기배려! 낭송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양생이자 수행!
- 9~10시 평화 출판! 나를 찾아서 나를 내려놓자. 음악에 나를 맡겨보아요~

### 학도넷 겨울방학 사서연수 했습니다.

- 연수명 : 빛으로 빛어낸 사람의 무늬, 영화 인문학의 세계 -영화로 역사읽기에서 나만의 역사, 영화로 제작하기까지-
- 강사 : 윤희윤 영화교육가(성공회대 외래교수, 29초영화제 집행위원&심사위원) / 이재욱(전 산청간디학교 학생동아리 교사, 청소년수련관 UCC동영상제작 강사)
- 공동주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주관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일정 : 2015년 1월 12일(월)~14일(수) (3일간, 10:00~17:00)
- 장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 학도넷 창립11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 합니다.

(도서관 이용자 이야기대회)

- 주제 :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이용자 이야기대회'
- 때 : 2015년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 곳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세미나실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후원 : 도서관화재단 '씨앗', 어린이문화연대, 창비, 사계절, 비룡소, 평사리, 철수와 영희, 웅진주니어

### 학도넷 여름방학 사서연수합니다.

- 주제 : 학교도서관 장서연구와 서평전문가로 거듭나기
- 때 : 2015년 8월 10일(월)~12일(수)

### 학도넷 만남과 바람합니다.

(한양에서 강연도로 향하던 옛길, 관동대로 순례)

- 때 : 2015년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356201-04-173422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학도넷)